

최소적립비율은 100%인데 DB형의 91.9%는 왜 원리금보장형인가

운용 손익은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돌아가고 근로자 측 위원 의무는 적립금 미달 뒤에 강해진다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의 8월 26일 지원방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급여·최소적립·운용위원회 규정을 대조했습니다.

발행	2026.08.27	연번	2026_66
읽는 시간	7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자료 기준일	2026.08.27	검증	공식 원문·현행 법령 대조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DB형의 낮은 수익률을 근로자가 안전자산을 골라서 생긴 결과로 보지 않는다. 급여는 퇴직일의 임금과 근속기간으로 정해지고 운용권과 손익은 사용자에게 있다. 최소적립금은 이미 100% 기준이지만 운용계획과 근로자 참여의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적립금 미달 뒤에 강해진다. 수익률 제고 지원과 함께 누가 언제 운용 결정을 감시하는지 봐야 한다.

CONTENTS

이 글의 순서

- 01 연구소의 판단
- 02 확정된 사실
- 03 왜 이런 구조인가
- 04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 05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 06 지금 할 일
- 07 갈림길
- 08 함께 읽을 것
- 09 근거와 검증

2025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3.5%, 원리금보장형 비중은 91.9%였습니다. 최소적립비율은 100%지만 300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립금운용위원회 의무가 없고, 근로자 측 위원회 필수 참여도 미달 여부와 연결돼 있습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26년 8월 26일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목표수익률과 자산배분 원칙, 감독·컨설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DB형 수익률	3.5%	DC형 8.5%·IRP 9.4%
DB형 적립금	228조9천억원	전체 501조4천억원의 45.7%
원리금보장형	91.9%	2025년 말 DB형 기준
5년 누적	수익률 15.9%·임금 18.9%	2021~2025년, 3%포인트 차이
최소적립비율	100%	2022년 1월 1일 이후
위원회 의무	상시 300명 이상	5~7명·연간 운용계획서
감독	2026년부터 정기감독	미충족 사업장·최대 1천만원 과태료

정부는 사용자에게 최소 임금상승률 이상의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퇴직급여 부채와 자산의 만기를 맞추는 운용전략을 마련하라고 안내했습니다. 300명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사업자의 컨설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DB형 급여는 퇴직일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으로 정합니다.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고르는 DC형과 달리 DB형 운용의 책임과 손익은 사용자에게 돌아갑니다.

최소적립비율은 2022년부터 100%입니다.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으로 보고, 사용자는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안에 해소해야 합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근로자가 받을 급여는 운용수익률로 직접 바뀌지 않습니다. 임금과 근속연수가 올라 급여부채가 늘고 운용수익이 그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 사용자가 추가 부담금을 냅니다. 수익이 높으면 이후 부담금과 상계하거나 일정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사용자가 원금 손실보다 부담금 변동을 피하려는 유인을 만듭니다. 원리금보장형은 단기 손실을 줄이지만, 부채보다 자산 만기가 짧으면 만기 때마다 새 금리로 다시 운용해야 합니다. 정부 자료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83%가 만기 3년 이내이고 근로자 평균 근속은 7.1년이라고 설명합니다.

운용 감시의 의무는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두고 목표수익률·자산배분·성과평가를 담은 계획서를 매년 작성해야 합니다. 300명 미만 사업장은 같은 의무가 없고 컨설팅은 선택입니다.

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 임원입니다. 근로자 측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는 요건은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강하게 작동합니다. 미달을 막는 사전 감시보다 미달 뒤 참여가 보장되는 순서입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DB형 가입자입니다. 급여 계산식은 유지되지만 회사가 최소적립금을 충분히 쌓지 않으면 퇴직 시 지급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미달이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등에 통지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월 300만원·근속 10년을 가정하면 일시금 기준은 3,000만원입니다. 같은 금액이 적립돼 있다고 놓고 5년 누적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3%포인트 낮으면 차이는 90만원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급여를 90만원 깎는 계산이 아니라 사용자가 추가로 채워야 할 부담을 보여 주는 가정입니다.

30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법정 운용위원회와 계획서가 없어 목표수익률과 자산 만기 전략을 확인할 문서가 적습니다. 연 1회 오는 적립금액·수익률 통지와 최소적립금 미달 통지가 핵심 확인 경로입니다.

급여 가정	3,000만원	월 300만원×근속 10년
5년 누적 차이	3%포인트	임금 18.9%-수익 15.9%
추가부담 예시	90만원	3,000만원×3%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 300명 미만의 운용 계획

컨설팅은 제공되지만 위원회와 목표수익률 문서화가 법정 의무는 아닙니다.

02 · 근로자 참여 시점

근로자 측위원의 필수 참여가 최소적립금 미달과 연결돼 있어 충분히 적립된 동안의 사전 감시는 회사 위촉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03 · 부족분 해소 속도

법은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1년 안에 해소하도록 하며 나머지가 자동으로 한 번에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04 · 수익률 목표의 법적 지위

임금상승률 이상의 목표는 정부 안내이고 모든 사업장의 법정 의무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05 · 지금 할 일**지금 할 일****국민**

- 퇴직연금사업자가 해마다 보내는 통지에서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을 확인하고 받지 못했으면 재발송을 요청합니다.
- 최소적립금 미달 통지를 받았으면 부족률, 해소계획과 다음 재정검증 시점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묻습니다.
- 300명 이상 사업장이면 적립금운용계획서의 목표수익률과 위원회 근로자 측위원 참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상회사

- 사용자는 목표수익률의 근거, 부채·자산 만기 차이와 부족분 해소계획을 운용계획서에 수치로 남깁니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미달 통지가 근로자대표·전체 근로자에게 실제 도달했는지 기록을 보관합니다.

당국

- 300명 미만 사업장의 목표수익률·자산배분 문서화와 근로자 참여 최소기준을 검토합니다.
- 정기감독 대상 선정, 미달률과 부족분 해소 실적, 과태료 부과 결과를 사업장 규모별로 공개합니다.

갈림길**근로자 참여가 미달 전으로 앞당겨지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300명 기준, 근로자 측위원 필수 요건, 목표수익률 문서화의 의무 여부

A

사전 운용단계에 참여한다
사업장 규모와 미달 여부에 관계없이 목표수익률과 자산배분을 근로자 측이 확인해 부족이 생기기 전에 이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B

미달 뒤 참여가 유지된다
충분히 적립된 동안 운용 결정은 사용자 중심으로 남고, 근로자 참여는 부족 통지가 나온 뒤에 강해 집니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2026년 10월 퇴직연금 가이드북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2 개정 여부, 2027년 감독결과를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

3개의 연결 지식

넥서스 브리프 퇴직연금 상위 10%는 19.5%, 하위 10%는 0.5%였다 ↗

금융상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금융제도 퇴직연금 제도 ↗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7건

01	1차 · DB형 수익률·원리금보장형 비중, 목표수익률·듀레이션, 감독·컨설팅 계획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6년 8월 26일 보도자료 · 확인 2026-08-27 · 확인 2026-08-27 원문 열기 ↗
02	1차 · DB형 급여는 퇴직일 기준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 확인 2026-08-27 · 확인 2026-08-27 원문 열기 ↗
03	1차 · 최소적립금, 재정검증 통지, 부족분 해소와 초과 적립금 처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 확인 2026-08-27 · 확인 2026-08-27 원문 열기 ↗
04	1차 · 300명 이상 사업장의 적립금운용위원회와 연간 운용계획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의2 · 확인 2026-08-27 · 확인 2026-08-27 원문 열기 ↗
05	1차 · 최소적립금 95% 미만과 부족분 비율 3분의 1 이상 1년 내 해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7조 · 확인 2026-08-27 · 확인 2026-08-27 원문 열기 ↗
06	1차 · 위원회 5~7명, 위원장·근로자 측 위원 포함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2 · 확인 2026-08-27 · 확인 2026-08-27 원문 열기 ↗
07	파생 · 월 300만원·근속 10년 급여 3,000만원과 3%포인트 차이 90만원 300만원×10년=3,000만원, 3,000만원×3%=90만원. 단순 가정 · 확인 2026-08-27

추적 예정	퇴직연금 가이드북의 DB형 목표수익률 서식, 정기감독의 미달 사업장·부족분 해소·과태료 결과와 운용위원회 요건 개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정정 없음.

면책 고지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이며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개별 퇴직급여 산정이나 투자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